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금융보험학과	이름	김*정
파견국가	Sweden	파견도시	Örebro
파견대학	Örebro University	파견기간	2017년 8월 ~ 2018년 5월
귀국여부	예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Örebro University는 외레브로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외레브로까지 기차/버스로 약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알란다 공항에서 버스 혹은 기차를 타고 Örebro C역에서 내려 학교까지 다시 버스를 타고 가야합니다. 외레브로 중앙역에서 학교까지 약 20~30분 정도 걸리며, 2번이나 3번(Brickebacken 방향), 9번(Universitetet 방향) 버스를 타고 Universitetet 정거장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학교가 보입니다. 학교는 우리 학교보다 조금 큰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건물이 없었고, 학교에서 가장 높은 층이 4~5층 정도였습니다. Örebro University 학교 시설은 전체적으로 깔끔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학교라서 그런지 외관 또한 깔끔하고 예뻐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가장 입구 쪽에 위치해 있는 'NOVAHUSET' 이라는 건물에서 조별과제도 모여서 자주 하고,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1~2층에는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가 많이 있었고, 또 점심도 해결할 수 있도록 간단한 편의점 같은 곳과 전자레인지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외레브로 시내까지는 버스를 타고 15분정도 걸리며, 자전거를 타면 약 30분정도 걸립니다.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길이 익숙해지고 난 후에는 날씨가 좋았던 날에 가끔 걸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Örebro 앱을 통해서 버스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평소 학교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여유롭지만,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학교 내 클럽이</p>

2017-2학기 수업	<p>운영되어 밤에 약간 시끄러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색다른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p>
	<p><b>International Management</b></p> <p>교환학생 학기 시작 후 처음 듣는 수업이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수업 분위기도 괜찮았고, 교수님과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로 교제 내용이 함축된 PPT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셨고, 수업 시작 전에 PPT를 blackboard에 올려 주셨습니다. 정해진 책 1권이 전부 시험 범위였고, 조별과제도 있었습니다. Major Paper를 조원들과 작성해서 PPT 발표를 하고, 또 다른 조의 Paper를 평가하는 Opposition Paper를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수업으로 괜찮았던 수업이라 추천합니다.</p>
	<p><b>Gender Equality and the Nordic welfare</b></p> <p>한국에서는 들을 수 없는 교양 과목으로 매번 수업때마다 다른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오전에는 PPT를 통해 강의를 하시고, 점심시간 지난 후 오후 수업에는 오전에 들은 강의 내용을 토대로 각자의 생각을 주고받는 세미나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시험은 따로 없었고, 개인적으로 Paper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스웨덴의 양성평등과, 북유럽 복지 국가들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었고, 한국과 스웨덴을 비교하는 Paper를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과목입니다.</p>
	<p><b>Strategic Decisions</b></p> <p>저는 전공으로 인정받기 위해 들었던 과목이었습니다. 경제 과목으로 미시경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시경제학을 미리 듣고 오지 않아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만약 이 수업을 듣는다면, 미리 미시경제학을 공부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판 수업이며 따로 과제는 없었고, 오로지 시험으로 100% 성적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업을 듣다가 중간에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된 과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 추천입니다.</p>
	<p><b>Supply Chain Management</b></p> <p>첫 학기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12월~1월에 듣는 수업이었는데, 12월 말과 1월 초에 집에 가는 유럽 학생들이 많아서 수업은 첫 주에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과제와 조별과제로 성적을 매기는 수업이었습니다. 먼저 일단 개인과제 분량이 정말 많았는데, 책 한권이 전부 범위였습니다. 매주 정해진 부분의 Chapter를 공부하고, 문제에 답을</p>

	<p>하고, 마지막은 공부한 부분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 접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문제는 10~12문제가 있었고, 한 문제당 반페이지 이상 답을 적었어야 했습니다. 또 조별과제는 마찬가지로 Major Paper와 Opposition Paper 작성이었습니다. 수업은 없었기 때문에 발표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보통 다들 여행을 가곤 하는데, 미리 과제를 다 끝내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업 자체는 추천합니다. (이 시기에 과제를 먼저 한다면 여행할 수 있음.)</p>
2018-1학기 수업	<p><b>Management of Business Logistics</b></p> <p>저번학기에 들었던 Supply Chain Management 수업과 비슷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제는 조별과제로 조원들과 함께 Major Paper를 작성하고, PPT 발표를 하며, Opposition Paper를 작성해 발표했습니다. 이 과목은 저번과는 다르게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발표할 때 전부 외워서 발표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본을 참고해서 읽기도 하고, 외워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발표가 조금 까다롭고 어려웠던 과목이었습니다. 시험도 범위가 넓어서 공부하는데 힘들었습니다.</p> <p><b>Swedish Language and Culture</b></p> <p>수업 이름처럼 스웨덴어와 문화를 배운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스웨덴 언어의 역사와 스웨덴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언어부분과 문화부분의 교수님이 다르셨습니다. 먼저 스웨덴 언어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문화 부분 강의에선, 저번학기에 들었던 Gender Equality and the Nordic welfare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해가 더 잘 됐습니다. 시험은 따로 없었고, 두 파트 모두 Paper를 각각 제출해야 했습니다.</p> <p><b>Culture and Leadership in International Business</b></p> <p>다른 수업들과는 다르게 8주 수업이었습니다. 수업보다는 과제가 많았던 수업이었습니다. 조별과제가 2번 있었고, 두 번 모두 PPT발표였습니다. 제일 처음 들었던 International Management과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과제가 힘들었던 과목이었습니다. 시험도 마지막 주에 있었습니다.</p> <p><b>Marketing of Sports and Events</b></p> <p>위에 수업과 같이 8주 수업이었고, 같은 주에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경영 과목이라 수업 시간이 겹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조별과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위에 수업과 같이 병행하기에 힘들다고</p>

	느껴서 수업들 듣다가 중간에 포기한 과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p>교환학생들을 상대로 약 한달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 신입생들도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환학생 OT의 경우, 약 10개의 그룹으로 조를 나눠서 한 조에는 약 13~15명으로 구성되는 Fadder Group이 생성됩니다. 그 중 스웨덴인 혹은 학교 생활에 익숙해진 교환학생들이 'Fadder'라는 것을 맡아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Fadder가 메일을 통해서 먼저 연락을 해줬고, 그 후에 페이스북 페이지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주로 소통했습니다.</p> <p>처음 도착했을 때, 주말이라서 Housing office가 열지 않아 Fadder 친구를 통해 열쇠를 받고, 그 친구가 직접 방을 안내해주고, 주방, 세탁실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간단하게 알려주었고, 이외에도 근처 마트가 어디 있는지, 학교 강의실 위치 등을 알려주어서 처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본격 시작되고, 하루하루 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캠퍼스에 대해 소개를 시켜주며 학교 규칙, 시험 규칙 등 기본적인 것들에 관해 설명해주는 설명회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룹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게 디너파티를 가지는 시간이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주 모여서 놀았습니다. 체육대회, 파티, 운동, 영화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든 친구들과 자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반에는 잘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수업도 같이 듣게 되면서 점차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꾸준히 참여하고 활동한다면, 다들 엄청 좋아하니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8월에 딱 도착했을 때, 반팔을 입었지만 저녁에는 쌀쌀해 남방이나 가디건이 필요했습니다. 9월 말까지는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늘이 낮고, 푸르고, 구름도 너무 예뻐다. 하지만 10월이 되자 점점 날씨가 쌀쌀하며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겨울이 찾아왔을 때, 거의 비가 내리거나 흐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와도 미스트처럼 내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맞거나 모자를 썼습니다. 또한 스웨덴에 있으면서 비가 폭포처럼 쏟아졌던 적이 없었습니다.</p>

	<p>겨울에는 해가 8시쯤 뜨고, 3시 넘어서 지곤 했습니다. 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날씨가 좋았던 날은 무조건 햇빛을 받기 위해 밖에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3월 말부터 날씨가 좋아졌고, 다시 여름에 봤던 하늘이 종종 나타나서 예쁜 노을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p>
안전	<p>저녁에도 혼자 근처 마트에 가도 문제없을 정도로 안전했습니다. 또 수시로 학교 내에 차로 순찰을 돌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한번 친구들과 장 보고 오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스웨덴 사람이 우리를 향해 물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도록이면 혼자 다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안전한 도시가 맞습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O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i></p> <p>보통 교환학생들은 ‘Studentgatan’이라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1인 1실이지만 주방은 보통 6~7명에서 공유를 합니다. 코리도메이트 친구들과 간단한 공동 생활 규칙을 정하고, 청소 스케줄을 정했습니다. 저희 코리도 같은 경우에는 1주일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복도와 주방 청소기 돌리고, 대걸레로 닦고, 분리수거한 쓰레기들과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는 정도였습니다. 만약 청소를 맡은 주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안될 경우, 서로 바꿔주며 융통성 있게 했습니다. 1인 1실이라 룸메이트와 맞추지 않아도 되어 편하고 좋았지만, 겨울에는 무지 추웠습니다. 라디에이터가 있긴 하지만 없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내내 전기장판과 한 몸이 되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숙사마다 지하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원래는 세탁실 안에 붙어있는 종이에 수기로 예약을 해 예약한 시간에 사용했지만, 올해 2월부터 기계를 통해 예약을 했습니다. 한번 예약할 때 3시간씩 이용 가능했습니다. 세탁비는 무료였고, 건조기도 있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세제나 섬유유연제는 각자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기숙사에 입사해서 짐을 다 풀고 천장을 봤는데, 구석 위에 큰 거미와 거미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빗자루를 이용해 급하게 처리하고 난 뒤에는 딱히 기숙사에 살면서 큰 벌레를 본적이 없었습니다. 제 방이 1층이었어서 그런지 날씨가 좋았던 날 가끔 창문 밖에 가 거미줄과 거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청소를 잘 한다면 방안에서</p>

	<p>벌레를 붙일은 없을 테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벌레가 없었던 점은 무지 좋았습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O) 기타 ( )</p> <p>물가가 비싼 북유럽이라 외식은 아주 가끔 하곤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주변 마트에서 장을 봐와서 직접 만들어서 해먹었습니다. 걸어 다닐 만한 거리에 'ICA MAXI'와 'WILLY'S' 라는 마트가 있어 자주 장을 보러 갔습니다. 또한 시내에 나가면 아시안마켓이 있어 그곳에서 쌀, 김치, 라면, 고추장, 쌈장, 된장, 떡볶이 떡, 떡국 떡, 두부, 다진 마늘 등을 구매해서 음식을 해먹었습니다. (덕분에 요리 실력이 많이 늘어서 온 것 같아요.) 또한 학교 캠퍼스 내에 파스타를 파는 곳과, 인도요리 전문점, 피자 와 햄버거를 파는 식당 같은 곳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가격도 맛도 괜찮아서 가끔 사서 먹곤 했습니다. 또한 편의점도 있지만 마트에 비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10시경에 닫았고, 일요일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근처에 있는 마트를 이용했습니다.</p>
<p>교통</p>	<p>기숙사는 학교 옆에 바로 있어서 강의실과 학교를 찾아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시내를 가려면 학교 앞 정류장에서 2,3,20번을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버스비는 원래 1회에 18SEK였지만, 올해부터 20SEK로 올랐습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도 가능하고, 충전 식 버스카드를 사용하거나, 'Örebr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앱을 통해 결제를 해 사용했습니다. 한번 버스카드를 결제하면, 버스카드와 앱을 통해서 3시간 이내에 계속 환승이 가능합니다. 이때 시내버스면 모두 환승 가능하고, 횟수도 딱히 제한이 없었습니다. 수도인 스톡홀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역인 Örebro Central로 가서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SJ'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매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Nett Bus', 'SWEBUS' 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매해서 다녔습니다. 수도인 스톡홀름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예매할 수 있었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한국-스웨덴 ₩780,000 스웨덴-한국 ₩620,000 총 ₩1,400,000	Emirates 항공 (두바이 경유)
Fees	약 ₩100,000 (800SEK)	오리엔테이션 비용
보험료	약 ₩240,000	해외 여행자 보험 사용 한화손해보험 – Assist card (300일)
숙소	약 ₩4,600,000	학기당 약 ₩2,300,000 (17,500SEK)
식비	약 ₩2,700,000	한달에 약 ₩300,000 (2,400SEK)
교통비	약 ₩90,000 (720SEK)	1회 ₩2,500 (18SEK)
책값	-	E-BOOK 혹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사용
기타1	약 ₩500,000	개인 쇼핑 비용
기타2	약 ₩3,500,000	개인 여행 비용
합계	총 ₩13,130,000	

#### 5. 출국 전 준비사항

스웨덴으로 교환학생 을 시, 스웨덴 거주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가 나왔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로, 스웨덴 학교 입학허가서, 보험, 잔고증명서, 여권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출국 전에 여유롭게 해결하면 좋을 것입니다. 교환학생이라면 기숙사 사용은 100% 가능하며, Örebro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자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웨덴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마트만 가도 온통 스웨덴어라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어느정도 알고 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기본적인 스웨덴어를 배워서 알아오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서

따로 스웨덴어를 알려주는 강의나 시간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스웨덴 친구를 사귀어 배우고 써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추위를 많이 타서, 10월부터는 전기장판을 틀고 생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1인용 전기장판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방안에 한국처럼 보일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거의 작동이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 개인 상비약들을 챙겨 가길 바랍니다. 또 저는 거의 겨울에는 롱패딩과 한 몸이었는데, 스웨덴은 추운 나라임에도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긴 패딩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서 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택배를 4번정도 받았습니다. 2번은 부모님께서, 2번은 친구들을 통해 받았는데, 어쩔 때는 기숙사로 배달을 해주지만, 다른 날은 직접 찾으러 가야했습니다. 그 경우에 택배를 찾는 곳은 버스타면 5분, 걸어서 20분정도 거리에 있는 'WILLY:S' 라는 마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때 여권과 우편함에 와있는 택배 확인서 같은 것을 들고 가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도 택배를 보낼 수 있는데 가격이 매우 비싸서 저는 이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스웨덴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니까 대부분 생활 용품들은 다 판매합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은 롱패딩, 실내화, 개인상비약, 전기장판, 미니밥솥, 수면 잠옷, 수면 양말,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국 식품입니다. 스톡홀름에 여러 개 한인 마트가 있긴 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또 안 파는 것이 있으니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돈 관련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몰라 출국시에 50만원 정도 스웨덴 화폐 SEK(크로나)로 환전해갔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은행 비바체크카드를 통해 카드로 결제하거나, 학교와 마트에 있는 ATM기를 통해 현금을 찾아 사용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수료가 비싸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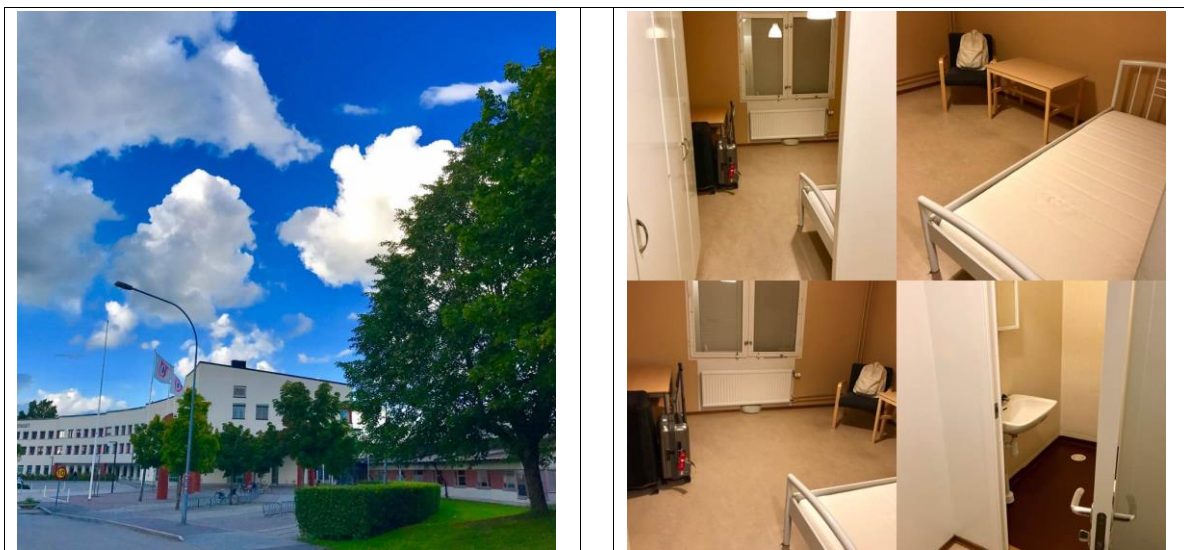
##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교환학생에 선발되고, 준비를 하면서 미리 다녀온 지인들을 통해 Reference의 중요성을 듣고 갔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과 유럽에서는 표절, 참고문헌, 인용 등에 민감하고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처음 개인 Paper를 작성하고 제출했는데, 학교 측에서 제 Paper가 표절 논란이 있어 현재 심사 중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수업을 같이 들었던 친구들은 이미 성적이 나온 상태였는데, 저만 이런 메일을 받아 걱정도 많이 했고, 말그대로 멘붕이었습니다. 제가 인용한 부분의 출처는 밝혔지만, 그 부분에서 인용구의 문장을 나만의 언어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용했던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표절심사에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출처를 밝히고 인용했던 것이어서 오해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수정해서 재제출한 후에,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교수님께 미리 잘 물어보고 대처한다면, 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러려고 교환학생 왔나 싶으면서 스웨덴 친구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 그런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서 시험이 있는 수업들 같은 경우에 만약 시험에서 F(Fail)를 받는다면, 재시험의 기회를 통해 성적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이 나온 후에, F가 아니더라도 다시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Blackboard를 통해 재시험을 신청하고 난 후 보통 한달 뒤쯤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좋았던 제도였습니다. 이외에 다시는 못할 많은 경험들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왔고,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색다르고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취미를 얻어왔습니다. 물가가 비싼 스웨덴에서, 대부분 밥을 직접 해서 먹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마트와 시내에 있는 아시안 마트를 통해 주로 식료품을 사와 해먹었습니다. 요리에 관심은 있었지만, 할 기회가 적었는데 스웨덴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다 보니 요령도 생기면서 흥미를 가져 귀국 후에도 직접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이 아니었다면 누리지 못했을 것 같은 스웨덴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사실 벌써 스웨덴의 하늘과 여유로움이 그리워요.) 귀국한지 한달 반이 되었는데, 첫 한달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토익과 토스 점수를 내기 위해 공부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정말 기회가 찾아오고, 또 찾아온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 그런 기회들을 잘 누리길 바랍니다! 파이팅!

## 7. 사진보고서



<p>학교 외부 사진</p>	<p>기숙사 사진</p>
	
<p>부엌 사진</p>	<p>주방 사진</p>
	
<p>창문으로 보는 창 밖 view</p>	<p>Örebro Central Station(중앙역)</p>



Örebro 성



Örebro 시내



Sweden Theme Party



체육대회